

대행 스님

죄가있든없든잘못했든잘했든무조건 조건 없는사랑을하라

… 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라고, 그 모든 문제 등등이. 그저 될 수 있으면 남의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하는 대로 그 밑의 사람들은 본받게 돼 있거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중들도 말이야, 어느 스님이나 누구나 몇몇 이렇게 보면 꼭 자기 가깝게 있는 스승을 그냥 따라가. 아예 그냥 물이 들어 버려. 그래서 중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아이,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스승이 그러니 그 제자가 오죽하랴." 이렇게 말이 되게끔 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누가 자기를 뭐랬다 하고, 누가 또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모습으로 보고 내 탓으로 보고 내가 저거 해야지,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우리 신행회 회장이나 또는 법사들이나 또 포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지.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이런 얘기나, 또는 아래로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도 뿌리에 현명하게 내려 줄 수 있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 긍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서 갈 뿐이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든가 또는 뭐, 때에 따라서 저쪽 상대방에서 물어 온다면 "아이, 그런 건 정성을 좀 들여 줬으면 좋겠네." 하는 말은 할지언정, "얼마를 시주를 해라." 또 "천도를 시켜라." 이런 거는 아주 친밀하게 알아서 그런 말이 저거 하지 않거나 웬만큼 아는 사람한테나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나조차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아.

내가 저기서 신도를 만나도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쫄딱 망한다든가 뭐, 이러한 언사를 논의한다면 아주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거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위로 올라갈수록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 여북하면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보현신이 있고 신장이 있고, 모두가 철 따라서 이렇게 있겠나. 그러니 '법사' 또는 '회장' 하면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 범위를 넓혀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되 상대방이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법사들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스님네들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스님네나 그 상대방은, 욕을 먹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고, 자기가 해서 자기 업보가 되는 거고, 자기가 해서 업보가 무너지는 거고 이렇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아휴, 저거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휴, 저러니까 저렇게 저러지.' 하고 벌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그냥 밀쳐 버리고, 그냥 한데 합쳐 버리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조건 없는 마음을 내 줘라. '죄가 있으니까 너는 못 살고, 너는 그러니까 못 살고, 그렇게 모순되니까 못 살고 너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 못 된다, 이거는. 너는 나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잘해 줘야 하고, 이런 것도 넓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거야.

나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법이. 잘못하는 건 잘못한 대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받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밀쳐 버렸는데 그 후로 생각하니까 모두가 나 아님이 없어. 내가 모자랐던 그 시절의 모습, 내가 전부 그 모습이야. 본래 잘난 사람이 없어. 본래 애당초부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본래부터 똑똑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모자라도 내가 모자랐을 때 내 모습이요, 아주 망하고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입이 아주 저거 하고 그런 사람도 바로 전자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고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넣고, 넣는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한순간에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안 된단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그만큼 해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얘기야.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신도들한테 주는 건지 알기나들 아느냐 이거지. 이거를 "너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다면,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그 사람 본인 자체도 빼고 낄 수도 없는 거다.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이 공부를 처음부터 몇십 년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오든가 중간이든가 또 얼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 잘못 생각해서 돌아갈 수가 있다. '아, 이게 이런 거라면 둘 아닌 도리를 왜 얘기할까? 이렇게 못 박아지고 이렇게 법이 정망돼 있다면 낮고 높고 둘이 아니라는 소리가 왜 나오나.' 벌써 이걸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아닌 도리라면 그것도 둘이 아니어야지, 응? 때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지. 아주 친밀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런데 볼 때 딱하고 이래서 "아이구, 그것 좀 하면 어때? 그렇게라도 한번 좀 해 봐." 이럴 수도 있지. 그거는 있어. 하지만 제일 나쁜 거는 뭐냐 하면 "너는…." 스님네들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불사 생각을 하고, 그건 좋아. 그러나 그것도 불사를 못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떠냐 이거야, 응? 우리가 언제 적에 재산을 저거 해서 영등같이 불사를 해서 끼고선 불법으로 교화시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천연적으로 부처님이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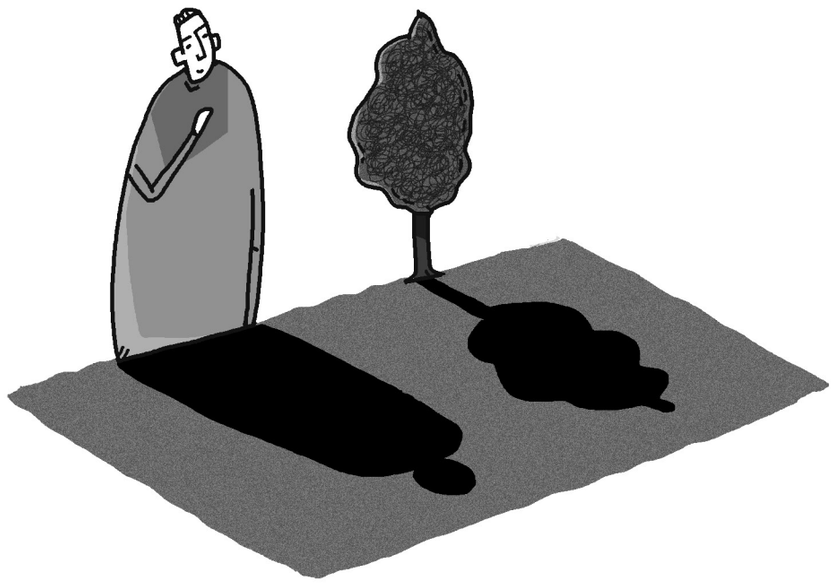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은 '이것을 잘 지어서 빨리 남들처럼….' 이러는데 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다는 것도 뭐냐. 난 그래서 이렇게 불사가 늦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부주가 딱 맞아야 되거든. 여기 이 터가 좁은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돼서 스스로서 집을 바꿔 가지고 나가도록 기다리니까 그렇게 그런 거야. 조금 더디면 어떻고 빠르면 어떠냐 이거야. 집을 그냥 영등같이 불사를 해서 몇 해를 걸려서 지어 놓고 이렇게 해도 그거 하나도 탐이 안 나요.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와서 닿는 대로 하는 거지.

얼른 쉽게 말해서 신도들이 자청해서 감사해서 내놓는 시주하고, 정성 들이는 거하고, 용돈이라도 쓰라고 갖다 주는 거하고, 이거는 자청하지 않고 강제로 "넌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해라" 해서 갖다 놓는 거는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야. 우리가 세세생생 안 볼 사람도 아니잖아. 왜냐. 모습은 없어질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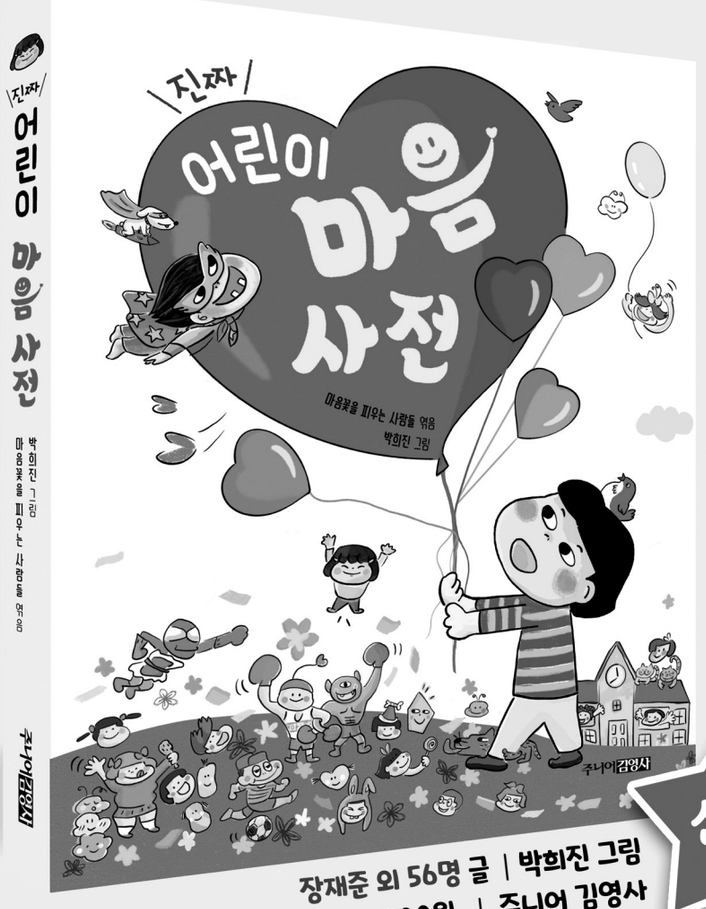
이렇게 금방에 말이야, 금이 반지로 돼 나가든지 목걸이로 돼 나가든지 나가서 돌다 돌다 결국은 거기 또 오게 돼 있어, 금은. 그러나 깡통이라면 돌다 돌다 또 그냥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왜 인간의 탈을 쓰고, 마음을 가지고, 이목구비를 다 가지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왜 금이 못 되느냐 말이야, 본래 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발견 못 하고, 또 그거를 발견했으면 그대로 그냥 금으로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하지 왜 깡통을 거기다가 붙이고 넝마를 붙이고 온통 그렇게 해 가지고 외려 금을 사금이 되게 만드느냐 이 소리야.

그리고 만나면, 이 공부하는 데 토론,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공부하는 데 법사들끼리 모이면 법사들끼리 공부하는 걸 중요시해야지, 무슨 개별적인 딴 사람 얘기, 이런 거 할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으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나를 발견해서 나를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 법사들 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항상 얘기하지. 나를 깨쳤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부착돼서 돌아가야지,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다고. 나를 발견

☞ 22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신간!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